

## 나면서 소경된 자

요 9:1~12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겪는 고난에는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베드로는 이 세 가지 고난을 베드로전서 2장 19절과 20절 말씀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애매하게 받게 되는 고난입니다. 일종의 누명이라 할 수 있습니다. 세상에는 이런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둘째는 죄로 인한 고난입니다. 잘못을 저질러서 받게 되는 고난입니다. 셋째는 선행으로 인한 고난입니다. 남에게 선행을 베풀다가 결과적으로 손해를 보는 경우입니다.

예수님께서 받으신 고난은 위의 세 가지 중에서 세 번째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선을 행하시다가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아마 우리들이 주로 받게 되는 고난은 두 번째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우리는 잘못해서 받는 고난이 대부분일 것입니다.

### **뉘 죄로 소경으로 났나이까?**

오늘 본문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억울하게 고난을 받고 있는 사람을 만나십니다. 1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길 가실 때에 날 때부터 소경 된 사람을 보신지라.”

예수님 당시에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참 많았습니다. 성경에 보면 성전의 미문, 즉 사람들이 모이는 거리에 구걸하는 소경들이 많이 있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만난 사람은 날 때부터 소경 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자신의 잘못으로 소경이 된 게 아니라, 선택의 여지없이 태어날 때부터 소경이 된 사람입니다.

제가 영국에 있을 때 성도 중에 한 분이 첫 아이를 낳았습니다. 그런데 아기가 손이 없는 상태로 태어났습니다. 분만실에서 처음 아기를 본 아버지는 당시 굉장한 충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 부부가 울면서 아이를 키우던 것이 생각납니다. 그러면 소경 된 이 사람은 누구를 원망해야 합니까? 2절 말씀입니다.

“제자들이 물어 가로되 랍비여 이 사람이 소경으로 난 것이 뉘 죄로 인함이오나이까 자기오나이까 그 부모오나이까.”

제자들의 질문은 어떤 면에서 존재론적이고 깊은 신학적 질문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자세히 살펴보면, 매우 현실적인 질문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삶은 현실이고 실제입니다. 한편으로 이 질문은 아주 예리한 측면을 갖고 있기도 합니다. 우리 삶의 허구성과 존재의 이율배반 그리고 설명할 수 없는 인간의 근원적인 질문이란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질문에는 두 가지 허구성이 있습니다. 하나는 소경 된 사람이 질문한 것이 아니라, 제자들이 질문한 것입니다. 소경 된 사람이 고난을 당하고 있는 것이지, 제자들은 아닙니다. 소경은 자신의 운명에 침묵하고 있습니다. 그에게 그런 질문은 하나의 사치인지도 모릅니다. 지금 소경의 관심은 오로지 구걸하는 일입니다. 반대로 소경을 바라보고 있는 제자들은 말이 많습니다. 주인공은 말이 없고, 아웃사이드들이 말이 많은 법입니다.

그런 예는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했을 때도 볼 수 있습니다. 요셉은 마리아와 잠자리도 갖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마리아가 임신했다고 하니, 요셉은 얼마나 고민했겠습니까. 그래서 요셉은 조용히 마리아를 보내려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주변 사람들이 그 일로 말이 많아졌다는 점입니다. 고난의 현장에 있는 사람은 침묵하고 있는데, 주변 사람들이 고민하며 말

이 많아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제자들이 잘못된 정보, 관행, 사고방식으로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의 질문은 정확한 것이 아닙니다. 당시 유대인들에게 잘못된 관행이 두 가지 있었습니다. 우선 부모의 죄가 자식에게 전수된다고 생각한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성경 말씀을 오해해서 생겨난 것입니다. 출애굽기 20장, 34장, 민수기 14장에 보면 “아비의 악이 자손의 삼사 대까지 이른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실입니다. 문제는 이 말씀을 극대화해서 아버지가 잘못해 자식이 병이 들었다는 식으로 결론을 내렸던 것입니다. 이로써 모든 운명을 아버지의 잘못으로 돌리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나머지는 모든 병이 죄로 인해 생기게 된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병을 아주 단순하게 해석합니다. 자신이 죄를 지었거나 혹은 조상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병이 왔다고 간단하게 치부해 버립니다. 잘못된 관행과 지식이 인생을 불행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계속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은 결국 각종 질병과 죄의식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됩니다.

우리 주변에 실패한 사람, 병든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그것이 모두 죄 값이라면 그들은 과연 어디로 가야 합니까? 그리고 죄를 짓고도 잘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든지 많이 있습니다. 시편에 보면 악인은 눈꺼풀이 피동피동하다고 했습니다. 악인이 아주 건강하다는 사실을 어떻게 해석해야 하나요? 제자들은 잘못된 사고방식으로 이런 질문을 한 것입니다.

### 행복의 기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명쾌하게 대답해 주셨습니다. 3절 말씀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가 죄를 범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니라.”

이 사람이 소경 된 까닭은 본인이나 부모의 죄 때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으로 제자들이 병자들에게 갖고 있는 잘못된 선입관을 고쳐 주십니다. 이것은 일종의 패러다임의 전환입니다. 우리가 불행한 것은 잘못된 생각에 기인합니다. 우리는 행복과 불행의 기준을 성경에서 찾지 않고 세상에서 찾으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인간은 병들고 가난하고 권력이 없을 때 자신은 불행하다고 말합니다. 잘 살고, 오래 사는 것이 진정 행복인가요? 우리는 처음부터 잘못된 기준을 갖고 있어 그것을 바꾸지 않는다면 정녕 행복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잘못된 기준을 고쳐 주십니다. 성경 말씀에는 마음이 가난해야 행복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죄가 가볍고 허물의 사함을 받으면 행복한 사람입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이 행복합니다. 악인의 꾀에 들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으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 사람이 행복합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런 관점으로 행복을 보지 않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건강하든, 병이 들든, 성공하든, 실패하든 우리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의 가치관이 성경적으로 변하기를 축원합니다. ‘좋다’와 ‘행복하다’에서 중요한 것은 가치관의 기준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기준, 성경에서 말씀하는 기준을 갖지 않는다면 우리는 많은 불행과 착오 속에서 시간 낭비만 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사람이 소경 된 까닭은 자신의 죄 때문도, 부모의 죄 때문도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사람이 소경이 된 이유는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기 위함이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좀더 정확하게 표현한다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함이다

라는 뜻입니다. 내가 병들고 건강하며 실패하고 성공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함입니다. 그런 사건들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이렇게 해석하면 모든 것이 그렇게 좋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3절에서 하신 말씀에 기초해 본다면, 우리의 인생은 결코 불행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동안 고난의 실존, 부조리, 불합리 등 인생의 많은 문제들이 순식간에 사라집니다. 우리는 영광스럽고 귀한 축복의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라는 찬양이 얼마나 행복하게 하는지 모릅니다.

인생에서 결혼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며, 아이를 낳아도 되고 낳지 않아도 됩니다. 그것은 그리 중요하지 않습니다. 결혼을 하지 않는다고, 아기를 낳지 못한다고 자신의 인생이 망한 것으로 생각하는 그 기준이 잘못된 것입니다. 대학에 들어가야, 취직해야 행복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은 거기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인생은 고통, 절망, 실패가 아닙니다. 허무, 부조리, 무의미는 더욱 아닙니다. 전쟁, 파괴, 가난의 현장도 물론 아닙니다. 그러나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알지 못하고 잘못된 기준 안에서 불행하게 죽어 가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속히 사람들에게 찾아가 ‘당신의 기준이 잘못되었습니다. 당신은 고귀하고 의미 있는 존재입니다. 인생은 살 만한 가치가 있는 존재입니다’고 말해 줘야 합니다. 우리의 모든 고난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 하나님의 일을 표현하기 위해 있는 것입니다. 4절 말씀입니다.

“때가 아직 낮이매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 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 존재의 이유

이 말씀에서 우리는 두 가지 메시지를 발견합니다. 하나는 예수님께서 자신의 삶이 어떤 것인가를 정의하십니다. 예수님의 인생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세상으로 보내셔서 사명을 이루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인생은 어떻습니까? 왜 우리는 세상에 나와 존재하고 있습니까? 안타깝게도 우리는 아직도 이 질문에 해답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이 땅으로 보내신 것에 분명한 해답을 갖고 계셨습니다. 4절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때가 아직 낮이매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자신을 보내신 이의 일을 하는 것이 사명이고 존재의 이유입니다. 그런 증거가 확실할 때 기쁨이 있고 고난 중에도 인내할 수 있습니다.

저는 예수님을 만나고 인생에 목표가 생겼고 인간적인 열등감이 사라지는 경험을 가졌습니다. 저는 온누리교회를 위해, 선교지에 2천 개 교회를 세우기 위해 존재한다고 생각하면, 인생을 고민하며 세월을 허비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일을 위해 무덤에 들어갈 때까지 시간을 낭비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일, 영광스러운 일, 인류의 죄 사함을 위해 십자가를 지시는 위대한 일에 무섭게 집중하십니다.

병든 자를 고치시고 죄인들의 친구가 되시며, 절망한 자에게 희망을 주시고 종교적 위선을 벗겨 주신 예수님의 33년 생애는 너무나 짧았습니다.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을 하면서 걸어다닌 거리가 2만km라고 합니다. 산이나 강으로, 사막이나 바다로 그냥 다녔던 것입니다. 인생의 한 순간도 허비하지 않고 다녔습니다. 아마 바울은 아플 시간도, 잠잘 시간도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인생에서 목표가 분명한 사람은 방황

하지 않습니다. 인생에서 의미가 분명한 사람은 시간을 낭비하지 않습니다.

다른 하나는 밤이 되면 일을 하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삶의 긴박성을 알고 계셨습니다. 밤이 되면 사명을 이룰 일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밤이 오기 전에 모든 일을 끝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영적 긴박성이 있어야 합니다.

에베소서 5장 16절부터 21절까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여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어거스틴은 이 말씀 앞에서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로마서 13장 11절 이후 말씀입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두움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과 술 취하지 말며 음란과 호색하지 말며 쟁투와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우리는 세상에 취해 있을 시간이 없습니다. 인생의 시간은 계속 흐르고 있습니다. 어느 순간에 실타래가 모두 풀려 끝나듯이, 인생도 한 순간에 끝이 납니다.

4절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두 가지 사실을 말씀하십니다. ‘나는 미션이 있다’와 ‘나는 시간이 없다’입니다. 사랑하는 온누리교회 성도님들, 성령 충만하십시오. 술 취하지 마십시오. 시간 낭비하지 마십시오. 불필요한 것으로 고민하지 마십시오. 각자의 인생을 정비하십시오. 이제 시간을 정리할 때입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 **예수님을 믿게 된 축복**

예수님께서 자신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5절 말씀입니다.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다.”

예수님은 말씀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 말씀대로 실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소경 된 사람에게 다가가셔서 눈을 고쳐 주십니다. 6, 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예수님은 아주 실제적인 분이십니다. 직접 행동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친히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서 소경의 눈에 발라 주십니다. 이 행동은 그 시대의 문화적 상황에 잘 맞는 행동 양식입니다. 예수님은 말씀이나 안수 등으로 인간의 질병을 고치시는 분이십니다.

마가복음 7장 33절 말씀처럼 공개적으로 병을 고치시기도 하십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두 귀를 막고 손에 침을 뱉어 그 사람의 혀에 대시고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고 열리라고 말씀 하시면서 귀와 입을 열어 주십니다. 이런 것들은 예수님의 방법입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은 이런 방법으로 병을 고치셨다는 사실입니다. 실로암에 가서 씻은 소경은 눈을 뜨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8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웃 사람들과 및 전에 저가 걸인인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가로되 이는 앉아서 구걸하던 자가 아니냐 혹은 그 사람이라 하며 혹은 아니라 그와 비슷하다 하거늘 제 말은 내가 그로라 하니 저희가 묻되 네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 대답하되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

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소경은 눈을 떴지만 영원히 살지 못하고 죽습니다. 나사로가 죽었다가 살아났지만 결국에는 죽습니다. 눈이 떠졌다거나 죽음에서 다시 살아난 사실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눈을 떠도 다시 감게 되고, 살았다가 다시 죽게 됩니다. 우리가 눈을 뜨게 된 것이 기적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이 기적입니다. 우리에게 축복은 다시 살아난 것입니다. 눈만 뜬 게 아니라 인생이 다시 살아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인생에 개입하신 것입니다. 인생에서 새로운 세계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인생에 목적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축복입니다.

이 사람이 소경 된 것은 본인이나 부모의 죄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보여 주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저에게 주어진 모든 사건들이 그런 사건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의 인생이 하나님을 증거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 것, 제가 가진 모든 것, 경험한 모든 것 그리고 저의 존재 자체를 하나님을 위해 사용될 수만 있다면 이보다 더 위대한 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여러분은 다니고 있는 직장이 귀한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떠날 때 떠나더라도 직장에서 열심히 사십시오. 그리고 가정을 사랑하십시오.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사랑으로 섬기십시오. 그것으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성도님들의 실패나 고통에서도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항상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 속에  
가치관의 혁명이 일어나게 하시고  
기준의 변화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세상의 가치관과 기준을 다 버리고  
예수님의 가치관과 비전으로  
세상을 다시 보게 하시고  
천국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  
아멘.

☞ 「온누리신문」 제공 - <http://www.onnurinews.com/>